

안녕하세요.

CEE U @TOP의 필자 UNB ENGLISH 진양문(T)입니다.

지난 주 제가 임직하고 있는 재중반의 개강 관계로 제가 하는 일도 없이 마음만 바빠서 EBS수능특강 3강 정리본의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빨리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인터넷 수능 독해연습도 나올 때가 돼서 저도 마음이 급하네요.

오늘의 칼럼에는 영화 "변호인"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혹시 변호인을 아직 보지 못하셨는데 꼭 보려고 생각중인 분들이라면 이 칼럼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3강 정리본과 함께 최근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 다시 회자되고 있는 E. H. Carr의 *The New Society*에서 발췌한 부분을 통해 빈칸추론 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 고문피해자들을 공산주의 간첩이라며 긴급체포하는 근거로 바로 E. H. Carr의 *What is history?*를 돌려보고 있다는 점을 검찰 측이 제시합니다. 이에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는 이 책을 밤 세워 읽고, 저자에 대한 신원증명을 주한 영국 대사관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췌한 부분은 다른 책에서 가져 오긴 했지만, 이 부분만 읽어도 저자의 이데올로기가 한 쪽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Does not the admission that values held by the historian necessarily enter into the history that he writes deprive history of any objective character? Can history in these conditions be more than a reflection of the whim of the historian? Now it seems to me foolish and misleading to deny the subjective element in history. Anyone who believes in the divine right of kings - a belief beyond the scope of argument - is bound to regard the last 150 years as a period of retrogression; and, if he is a historian of that period, he will weave his facts into a pattern of decline. But this does not mean that history is purely subjective. Life rejects these logical dilemmas of choice between opposites. The question of whether man is free or determined, like the famous question about the hen and the egg, permits of two contradictory answers, both equally valid. History \_\_\_\_\_. The historian takes his raw material, the dry bones of fact, and, articulating them under the inspiration of his own sense of values, turns them into the framework of living history.

- ① is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 ② is a form of biased narrative
- ③ accumulates itself, not colored and distorted by historians
- ④ has no choice but to be affected by its contemporary circumstances
- ⑤ is akin to the seek-and-hide game, where we must uncover the familiar

정답 및 해설은 다음 EBS 수능특강 4강 정리본 업로드 시에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